

2015 문화계 결산

② 공연

예술극장 파격 무대 눈길·눈높이 공연 아쉬움

문예회관 개방형 관장제·단원 평정 강화 개혁 국극단 등 시립예술단체 불협화음에 시끌시끌 박윤모 모노드라마 '아버지' 해외 공연 돋보여

10년만에 전면 개편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예술극장은 공연계의 가장 큰 화제였다. 또 개방형 관장제 도입 등을 포함한 광주문예회관 개혁안이 눈길을 끌었고 예술감독 퇴진 문제도 내용을 알고 있는 국극단 등 일부 시립 예술단체들의 불협화음은 지역 문화계에 안타까움을 줬다.

'아시아 예술의 허브' 역할

예술극장은 9월 열린 개관 페스티벌과 이후 진행된 시즌제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40여개의 작품을 선보였다. 다양한 작품을 제작해 '동시대 아시아 예술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예술극장의 기본 미션은 일단 합격점을 받았다. 예술극장이 제작(공동제작, 자체 제작 포함)한 21편 중 16개 작품이 내년 하반기까지 세계 페스티벌에 초청받아 110회 투어가 예정돼 있다.

기준에 볼 수 없었던 낯선 작품들에 대한 평가와 관객 반응은 엇갈렸다. 아핏자퐁 위타세쿰의 '열병의 방', 블랙베일의 'B전시'와 '맥베스', '만마리의 호랑이', '야구에 축복을', '봄의 제전' 등은 기발한 상상력과 파격적인 무대 형식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시즌제 프로그램이었던 로버트 윌슨의 '해변의 아인슈타인'은 인티미션 없이 4시간 40분 동안 진행되는 작품임에도, 관객들을 몰입시키며 감동을 전했다.

하지만 컨템포러리 장르에 '단련된' 전문가들과 달리 지역 예술인과 관객들에게는 감성하는 자체가 고역이 되는 경우도 많아 '그들만의 잔치'가 아니냐는 불만 소리가 나왔다. 극장을 찾은 관객은 200여명의 해외 관객을 포함, 서울 등 대부분 외국인들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작품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지는 지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연 안내 등 홍보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극장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극히 적었던 점은 아쉬웠다.

전당 측은 자체적으로 기획한 뮤지컬 갈라 공연과 오는 31일 열리는 제야 음악회 등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며 지역민과의 접

점을 찾고 있는 중이다. 공연 제작과 관람 등에 지역 예술인들이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는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다. 지역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아트웨이 숲', '소리의 숲', '검은밤'의 '비는 오지 않지만 우리에게 우산이 있지' 등 두 작품을 올렸지만 2차 공모 사업은 현재 잠정 중지된 상태다.

광주문예회관 개혁 작업도 진행됐다. 지난 9월 TF팀을 구성해 개혁안을 마련한 문예회관측은 일단 지금까지 말만 무성했던 개방형 관장직을 도입을 확정했다. 또 7개 예술단체를 총괄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하는 등 단원 평정 방식도 강화했다.

특히 예술감독 선임과 관련, 전형위 원회를 통한 공모와 함께 단원 추천제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우선 올해말로 임기가 끝난 광주시향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7개 시립예술단 가운데 올해 새로 수장을 맡은 국극단과 발레단은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시립국극단의 경우 예술감독의 경력 문제 등을 둘러싼 일부 단원들과 감독의 대립이 격화되고 소·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아직까지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발레단의 경우도 중국 공연과 관련, 당초 무대에 올리기로 했던 '명성황후' 대신 '지젤'을 공연하면서 예산을 초과한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밖에 올해 임기가 끝난 임한귀 합창단 상임지휘자는 2년 연임이 확정됐으며 이현세 광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지난 22일 정기공연을 마지막으로 광주시향을 떠났다.

미디어아트+무용 콜라보

올해 공연계의 화두는 예술가들의 '콜라보레이션' 작업이었다. 우선 미디어 아티스트 진시영씨와 무용인들의 협업이 눈에 띈다. 그린발레단과 준비한 '황해'는 색다른 감동을 전했으며 젊은 무용인 조기영씨와 협업작품인 '뉴폼'은 광주를 비롯,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미국 샌 안토니오시 등에서도 공연됐다.



블랙 베일의 '맥베스'

또 푸른연극마을은 오페라와 연극을 결합한 '파우스트'를 무대에 올렸다.

연극계에서는 박윤모의 모노드라마 '아버지' 해외 공연이 돋보였다. 지금까지 210여차례 공연된 '아버지'는 지난 6월 파리 국립 기메발롱관에서 열린 아시아페스티벌에 참여한 데 이어 벨기에 한국문화원에서 공연을 가졌다.

또 올해 극단 창단 30년을 맞은 '까치놀이'는 '그것은 목탁 구멍 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를 기념작으로 공연했으며 광주에서 첫선을 보인 러시아 람베극장과 광주 극단 '연우랑'의 합작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도 색다른 무대였다. 그밖에 올해 처음 시작된 광주시립연극제에는 주민극단 '정거장' '화사한 마을극단' 등 6개 극단이 참여, 눈길을 끌었다.

조성진의 소용 공쿠르 우송 등 어느 해보다 클래식 아티스트들의 행보가 눈에 띄는 가운데 올해 제60회 부조니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여

수 출신 피아니스트 문지영의 활약이 돋보였다. 또 베를린발하모니스트링 콰르텟과 조재혁의 협연을 비롯해 피아니스트 백건우, 올해 킨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피아니스트 손열음, 노부스 콰르텟,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한동일·이혜련 부부등 클래식 스타들의 공연도 이어졌다.

백건우 등 클래식 스타 공연

그밖에 5년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 '안성현 나주현대음악제'와 빛가람직장인오케스트라, 더드림페밀리오케스트라 등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오케스트라의 활동도 지역 문화계를 풍성하게 했다.

또 지역 기업인 화천그룹이 설립한 서암문화재단이 주최한 제1회 서암음악회와 극단 y가 진행한 우리동네 명배우 열전 등 눈에 띄는 공연도 많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JK 김동욱



마야

수험생을 위한 '비긴 어게인 콘서트 2016'

28일 광주문예회관

JK 김동욱·마야 등 출연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광주문예회관(관장 박영석)이 28일 오후 7시 30분 대극장에서 수험생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를 개최한다.

'비긴 어게인 콘서트 2016'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에서는 시립예술단과 유명 가수들이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다. 1부에서는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피아졸라의 곡 '천사의 밀롱가', '망각', '리베르탱고'를 선보이며 시립합창단원인 테너 정기주, 소프라노 정혜진씨가 카푸아의 '오 나의 태양',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

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를 열창한다. 2부 공연에서는 JK 김동욱이 '미련한 사랑' 등 그간 들려왔던 히트곡들과 함께 '서른 즈음에', '질레꽃' 등 다양한 노래를 선사한다.

또 여성 17인조 K-레이디스 재즈 오케스트라가 'Gonna fly now', 'New york new york', 'my way' 등을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는 파워풀한 가창력을 자랑하는 마야가 장식한다. 김소월 시로 유명한 대 표곡 '진달래꽃'을 비롯해 '나를 외치다', '벚노래' 등을 선사한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학생 50% 할인)이며 수험표를 제출하면 3000원~1000원에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835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28일 빛고을시립문화관

'빵 만드는 공연-김원중의 달거리' 행사가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립문화관에서 열리며 한해를 마무리한다. 이번달 주제는 '나무가 있는 언덕 너머'다. 출연진은 느티나무밴드(정은주·신희준·박우진·송기정), 퓨전국악그룹 '루트머지', 소프라노 유형민, 바닥 프로젝트(임웅·김영호·김현우), 프롤로그(최성식·서민정·박강민), 우물안 개구리(봉봉, 라태양, 소갈) 등이다.

초대손님으로는 안은경 피리연주가 초청됐다. 안씨는 중요무형문화재 제46호인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이다. 드라마 '해를 품은 달', '마의' 등의 OST, 싸이의 'KOREA', 김창완밴드의 '아리랑' 등에 참여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이외에도 주홍 작가의 샌드애니메이션과 리얼친 사진작가의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무대감독은 김좌진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티켓은 따로 구입할 필요 없으며 공연 후 모금함에 정성을 보태면 된다. 수익금은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빵공장에 기부한다. 문의 010-3570-580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수호부동산중개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인가등록 (등록번호 15-16-15) 된 업체로서 법원경매 낙찰대리업무,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 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NPL 잔금 5.2~5.9% 중도상환 無

(유)수호중개법인 물건 광고					
광주지원	2014타경 30504	주택	군산지원	2012타경 7036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0736	상가	남원지원	2015타경 377	공장
순천지원	2014타경 7817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전주지원	2015타경 8853	근린상가	광주지원	2015타경 1428	공장
목포지원	2014타경 16341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6914	임야
전주지원	2015타경 5779	숙박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29078	사무실
광주지원	2013타경 10367	공장	수원지원	2015타경 9386	근린시설
장흥지원	2015타경 605	공장	서울동부지원	2015타경 3901	근린시설
광주지원	2014타경 30627	공장	남원지원	2015타경 179	아파트
전주지원	2015타경 3629	공장	의정부지원	2013타경 16018	임야
순천지원	2015타경 2628	공장	광주지원	2015타경 375	의료시설
목포지원	2014타경 13618	아파트형공장	목포지원	2013타경 7272	근린시설
군산지원	2014타경 9739	공장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 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험중양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근저당권 채권,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수호 중개법인 /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

등록번호 200114-0058676 / 200114-0062461